

남수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I. 일반개황

면적	644천 km ²	G D P	-
인구	8.26백만 명 (2008)	1 인 당 GDP	-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Sudanese Dinar (SD) ¹⁾
대외정책	-	환율(달러당)	2.44

-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공화국(Republic of South Sudan)은 2011년 7월 9일에 독립한 신생국임. 수단(Republic of Sudan)이 1956년에 독립한 이후 남부와 북부 지역 간에 인종, 종교 등의 차이와 경제적 격차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이 지속되다가 국민투표를 거쳐 분리·독립하였음. 한반도의 2.9배에 달하는 국토와 83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분리 이전에 수단은 아프리카 5위의 산유국이었는데, 원유는 매장량 67억 배럴 중 약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는 반면 정유시설, 원유수출용 파이프라인, 항구는 북수단에 소재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 수출과 관련된 북수단과의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이 남수단의 가장 큰 경제적 과제임.
- 농업 부문은 풍부한 강수량과 비옥한 농경지 등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정부 투자 및 해외 원조가 집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관광업의 발전도 기대됨.
- 살바 키이르(Salva Kiriir Mayardit) 초대 대통령과 수단인민해방운동(SPLM: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이 정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나, 2011년 10월 28일 Mayom에서 반군의 무장공격으로 75명의 군인과 경찰,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권 정착과정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1) 현재는 북수단과 동일한 Sudanese Dinar(SD)가 사용되고 있으나, 2012년 9월부터 새로운 통화인 South Sudanese Pound가 SD에 연동되어 사용될 예정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2년에 5% 후반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원유의 정제, 수송, 수입배분 등에 대한 북수단과의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GDP 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2012년에 남수단이 원유관련 수입(收入)의 18%를 북수단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해외원조와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5.8%(정부 목표: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의 기업들이 남수단의 건축업, 제조업, 전기·통신업 등에 투자할 예정임.

□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 대비 흑자 규모는 2011년에 2.0%, 2012년에 5.0%로 예상되고 있음.
 - 재정지출 규모는 2012~13년에 약 43억 달러로 독립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보안군, 군대 등에 대한 급여와 인프라 개발 사업이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입은 2012~13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원유채굴 관련 숙련노동력이 부족함(남부 유전의 근로자들이 북수단으로 복귀할 예정)에 따라 원유생산량 이 줄어들어 감소할 전망이다.
 - 원유생산량 전망(천 배럴/일) : 177(2011년) → 345(2012년) → 328(2013년)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f	2012 ^f	2013 ^f
경제성장률	-	5.8	2.8
재정수지/GDP	2.0	5.0	2.0

자료: EIU.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1%로 전망

- 남수단 정부는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체계를 마련하였고, 10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7%, 전년 대비 무려 71%임.
 - 이는 남수단의 독립 이후에 중요한 교역 대상인 북수단이 석유수입 배분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주요 물품의 공급 제한과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남수단을 압박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2~13년에는 국제식료품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20%를 기록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가. 구조적 취약성****□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수입이 GDP의 약 71%, 재정수입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취약한 인프라

- 오랜 내전으로 사회 전반적 인프라가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포장도로는 48km에 불과하며 남수단의 유일한 발전소는 디젤엔진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임.

- UN에 따르면 수단은 인간개발지수에서 169개국 중 154위임. 남수단의 경제적 궁핍은 더욱 심각하여 인구의 90%가 1일 소득이 50센트 미만인데다 80%가 움막에 거주하며 문맹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국 자본의 국내경제 장악

- 경제의 주축인 석유산업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외국의 자본이 국내 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유를 탐사, 개발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산유량의 90%를 중국의 CNPC, 인도의 ONGC, 말레이시아의 PNNBP가 차지하였음.
- 특히 중국은 유전 개발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단 경제를 장악하고 있음. 중국은 1995년부터 원유 개발에 참여하여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수단의 원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남수단-우간다-케냐 뽀바사 항을 연결하는 2,000km의 송유관을 차관으로 건설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자원 획득에 적극적임.
- 외국인들은 상당 규모의 토지와 주요 상업시설도 장악하고 있음. 2007~10년에 26,300km²의 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주요 상업시설은 대부분 인접국의 자본가들이 운영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남북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수단은 원유 매장량이 67억 배럴로 아프리카 5위이었는데 이 중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으며 철, 금, 은, 구리, 석탄, 우라늄 등의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티크, 마호가니 등 원목류와 아라비아고무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함.
 - 특히 고무의 경우, 수단은 독립 이전에 세계 최대의 고무 생산·수출국으로 나이지리아, 차드 등과 함께 중요한 아라비아 고무의 공급원임.

□ 농업 및 생태관광업 부문에 잠재력 보유

- 남수단의 백나일 계곡(White Nile valley) 지역은 아프리카 내 비옥한 농토 중 하나로 손꼽히며,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함. 또한 백나일강(White Nile)을 활용한 대규모 수력발전도 가능함.
- 동 지역에 현재 1,000만~2,000만 마리의 소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향후 생태 관광사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임.

다. 정책성과

□ 해외 원조 및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정부는 주변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독립 후에 중국은 남수단 개발 프로젝트에 3,150만 달러, 미국은 남수단의 주바와 우간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2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이탈리아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5,000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하였고, 일본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해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남수단은 걸프 아랍국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기진출국들은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신생국 시장의 선점을 기대하는 신규 외국인투자도 기대됨.

□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임.
 - 에티오피아 등 인접국에 비해 강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계획임.
 - UN 식량농업기관(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으로부터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지원을 받은 바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1 ^f	2012 ^f	2013 ^f
경 상 수 지	28	29	12
상 품 수 지	43	104	84
수 출	59	108	88
수 입	16	4	4

자료: EIU.

3. 대외거래

□ 원유 수출의 증가로 상품·경상 수지 흑자 전망

- 원유에 대한 내수 규모가 북수단보다 작아 원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과 2013년에는 수출액이 수입액을 크게 상회하여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외국 석유기업들의 과실송금과 서비스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농산품과 공산품 수요량의 대부분을 북수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잠재력을 지닌 농업부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어 수입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원유수출액 전망(백만 달러) : 5,841(2011년) → 10,700(2012년) → 8,748(2013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키이르 대통령과 SPLM의 정권 장악

- 독립 후의 초대 대통령은 종전 수단 부통령이자 남수단 자치정부 수반인 살바 키이르임. 키이르 대통령은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의 창설자로서 22년간 내전을 주도하였으며 2005년에 존 가랑 당시 수상이 사망한 이후 남부 자치정부의 권력을 승계하였음.

- SPLM이 초대 국회의 의석 중 약 94%(159석)를 차지하며 거의 전권을 장악한 가운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타 군부와의 불협화음, 인종 간의 마찰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원유수입 배분, 국경 구획 등 제반 현안을 둘러싼 북수단과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이를 여하히 조속하게 타결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느냐가 향후 키이르 행정부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임. 또한 이는 2015년에 새로운 헌법 하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치안 불안 및 정권 정착을 위한 갈등 상존

- 수단인민해방군(SPLA: Sudan Peoples Libaeration Army)과 반군 간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2011년 10월 28일 Mayom에서 반군의 공격으로 75명의 군인과 경찰,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2011년 11월 3일 UDF(United Democratic Front)²⁾의 당대표가 정부에 대한 무장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음.
- SPLM과 북수단의 국민의회당³⁾은 원유수입 배분 등 각종 현안에 관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최소한 수 년 간은 국경을 둘러싼 무력 갈등이 예상됨.

3. 국제관계

□ 독립 직후 UN 가입

- 남수단은 2011년 7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93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음.

2) 2011년 초에 남수단의 독립에 반대했던 정당들 중 하나임.

3) 국민의회당(NCP: National Cogress Party)은 현재 북수단의 집권당으로서 수니파 이슬람 교도들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중국은 1995년부터 원유개발에 참여하여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일 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
- 2011년 7월 9일 중국과 수교공보를 체결하였고, 중국이 남수단 개발 프로젝트에 3,15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주변 국가들과 호의적 관계 형성 기대

- 우간다, 케냐 등과 호의적인 관계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북수단과의 교역도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기 전까지 향후 몇 년간은 순탄하지는 않으나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남수단은 아랍에미리트(UAE)와 강한 유대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첫 대사관 설치국으로 UAE를 선택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독립 이전에 수단의 외채규모는 총 380억 달러이었으며, 독립 이후 이에 대한 배분율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와 3대 신용평가사는 남수단에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남수단간 외교관계 수립

- 정부는 그간 남수단 독립에 대비하여 민관합동사절단, 개발협력조사단 파견 및 제1차 한-남수단 정책대화 개최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독립 후에는 남수단공화국 독립경축식에 대통령 특사로 특임장관을 파견하여 남수단의 독립을 축하하고, 한-남수단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남수단의 UN 가입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음.

□ 남수단 여권 제작 담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

- 2011년 4월에 남수단 내무부장관 일행이 방한하여 한국조폐공사와 남수단의 여권 제작과 관련하여 구입량과 인도 시기 등을 협의하였음.
- 또한 남수단의 신수도 건설, 자원 및 건설, 유전 및 가스전 등의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바 있음.

V. 종합 의견

- 철, 금, 은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으로 분리되기 이전 수단의 원유 매장량의 약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어, 석유수입 배분에 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향후 남수단의 성장 잠재력을 가시화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초대대통령인 키이르 대통령과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이 정권 정착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반군과의 갈등으로 치안 불안요소가 남아있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 전까지 국경에서 북수단과의 갈등이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우간다, 케냐 등의 주변 국가와도 호의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독립 직후 UN에 가입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독립국으로서의 남수단의 활동이 기대됨.
- 그러나 독립 이전의 내전에 따른 각종 피해 즉 극히 부족한 인프라, 저투자, 높은 문맹률 등 해결하여야 할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음. 또한 개발원조 등 국제 사회의 자금지원이 기대되나 만연한 부패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